

“돈까스 말고 돼지가 좋아졌어요”

완주미디어센터, 27일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 상영·황운 감독과의 대화 마련

돈까스가 내게로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의 돼지사육 환경을 담은 국내 최초의 장편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가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이 영화를 만든 황운 감독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황운 감독은 동물의 현실을 그린 〈작별〉(2001),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의 흔적 〈침묵의 숲〉(2004), 로드 킬 〈어느날 그 길에서〉(2006) 등 우리 땅에서 아파하는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아 왔다. 올 설 연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 〈사람할까, 먹을까〉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번 상영과 감독초청 행사는 전주미디어센터협의회와 상영지원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루어졌다.

김주영 완주미디어센터장은 “영화 자체도 무

척 재미있지만 황운 감독과의 대화는 생태적인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며 “주민들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영화 상영과 연계한 감독초청이나 미디어 특강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은 “완주군은 공동체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미디어센터는 ‘시골극장 풍채네’라는 자체 사업을 통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완주미디어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mediacenter>)를 통해 상영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시설단체를 찾아가는 무료상영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딱딱하고 어려운 클래식은 이제 그만!

오늘 고창문화의전당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

고창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는 유쾌한 콘서트!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는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클래식연주회 컨셉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개그맨 김현철의 지휘 퍼포먼스와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로 웃음과 음악의 감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클래식 공연이다.

김현철은 2013년부터 개그맨에서 지휘 퍼포머로 변신해 대중에게 익숙한 클래식 곡을 친숙하고 유쾌한 해설로 풀어주며 총 60회가 넘는 공연의 지휘자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공연은 1부 서곡의 향연으로 주제의 경기병 서곡,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서곡,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을 만나.

2부는 유쾌한 클래식을 주제로 비제의 미뉴엣, 피랑델, 하비네라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한 여름 밤의 아름다운 소리와 관객과 함께하는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위해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클래식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주민설명회 가져…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순창군이 24일 향토회관에서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정성균 순창군의회장, 순창군의회원, 사회단체장, 주민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퓨전국악공연 나나레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경과보고, 건립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기존 공연장인 향토회관이 1997년 준공돼 시설 노후화로 대형공연단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전문공연장 건립 필요성이 높아져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군은 현재 건립예정부지로 순창경찰서 인근 3.3ha를 예정한 가운데 온리뷰아파트, 행복주택, 순화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상주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남계리와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선택했다면 부지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문공연장은 700석 내외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과 복합화해 420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새로 건립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는 기획공연 전문가를 채용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군내·외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고품격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새롭게 들어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수준 높은 전문 공연을 집중·특화해 관광 상품화하는 동시에 모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지역내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순창군이 24일 향토회관에서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향토회관은 좌석수를 줄여 소극장으로 공간구성에 변화를 줘,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등 아마추어 중심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가 숨쉬는 순창’ 건설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순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이번 건립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교육에서 취업까지 한번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지원 성장동력산업제조인력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선도기업들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급증에 맞춰 우수인력 지원 개발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선발한다.

교육내용은 제조산업에 대한 실무적 이해, 체계적인 생산시스템, 현장안전 교육 등 전문직업교육과 직무소양교육, 취업대비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강료는 자비 부담금 10만원을 선입금하지만 수료 후 취업 시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협력마포’를 8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며, 5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관련기업 취업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와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취업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애 센터장은 “지나해 성장동력산업제조



인력양성교육과정은 우수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며 “이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교육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지원팀(063-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